

8년간 두들겨맞고! 죽고! 이게 진실이다!



유성지회가 조폭노조? 8년간 두들겨 맞은 노조!

유성지회에 대한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폭력 사건을 빌미로 유성지회는 물론 민주노총까지 싸잡아서 ‘조폭노조’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오로지 노동조합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11월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유성기업 노무담당 김00 상무와 일부 지회 간부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인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보수언론들은 연일 기사화하면서 ‘감금하고 1시간을 폭행했다’, ‘전치 12주가 나왔다’며 자극적인 내용을 쏟아냈다. 8년간의 울분이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1~2분간의 폭력이 어느새 1시간 폭력으로 뒤바뀌고, 전치 4주 부상은 이곳저곳 다 따로 계산해서 전치 12주로 둔갑했다.

유성지회는 지난 8년간 노조파괴 과정에서 용역강패의 물리적 폭력, 징계와 고소고발로 인한 정신적 폭력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말 그대로 8년간 두들겨 맞은 노조다. 결국 한광호 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과연 누가 조폭인가?

머리 터지고, 목숨 잃을 땐 뭘 했나?

2011년 회사가 고용한 용역강패가 대포차량을 몰고 조합원들에게 돌진해서 조합원 13명이 중상을 입었다. 회사가 고용한 용역강패는 회사로 들어가려는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조합원들의 두개골이 함몰되고 광대뼈가 박살나기도 했다. 이 조합원들은 1년간 병원 신세를 지야

했다.

그때도 보수언론과 정치권은 유성지회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라며 비난하기 바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담화문을 발표해서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불법파업이라고 몰아갔다. 물론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귀족도 아니었고 그 파업은 불법파업도 아니었다. 거짓말로 노동조합 죽이기에만 열을 올렸다.

한광호 열사가 노조파괴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언론과 정치권은 잠잠했다. 노조파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은 이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유성지회 조합원의 43%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진짜 폭력, 노조파괴 뿌리 뽑는다!

감히 노동자가 회사 임원을 때려서 이렇게 뉴스거리가 된 것이다. “상전이 하인을 때리면 뉴스가 안되지만, 하인이 상전을 때리면 뉴스가 된다.” 이것이 여전히 대한민국 노동현실이다. 언론은 유성기업에 벌어진 노조파괴를 진실되게 보도해야 한다. 정치권도 유성지회와 민주노총 때리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고 노조파괴를 끝장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진짜 폭력은 8년 동안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노조파괴’다. 유성기업의 진짜 폭력, 노조파괴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는 노조파괴의 진실을 알리고 이번에는 진짜 끝장내는 투쟁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다.